

4/5/20

설교 제목: 회개하고 부르짖어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21 장 1-17 절

- (마 2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 (마 21: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향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 (마 21: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 (마 21: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 (마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절관주** 사 62:11, 슥 9:9
- (마 21: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 (마 21: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절관주** 왕하 9:13
- (마 21: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절관주** 레 23:40, 요 12:13, 시 118:25, 마 22:42, 막 12:35
- (마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절관주** 막 11:15, 눅 19:45, 요 12:13
- (마 21: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 (마 21: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막 11:15-19; 눅 19:45-48; 요 2:13-22)**

- (마 21: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절관주** 대하 6:12, 눅 18:10
- (마 21: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사 56:7 렘 7:11
- (마 21: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마 21: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마 21: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절관주** 시 8:2

(마 21: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오후부터 시작하여 한 주간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리며 고난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는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잡히셨고 그밤에 재판을 받으신 후 다음 날 아침 9 시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오후 3 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가지고 매주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어 왔지만 종려 주일과 부활절에는 절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두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신 후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다니로 가서서 하룻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예루살렘에 들어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유월절을 지키기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로 붐비어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마 2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마 21: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향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마 21: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고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나귀를 가지러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걸어서 다니시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려고 하셨는지와 이왕에 뭔가를 타고 가시려면 말을 타시지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려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 21: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당신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에서 메시아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슥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당신의 겸손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왕들이나 장수들은 모두 말을 탔지 멩에를 매는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겂옷으로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마 21: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마 21: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되신 지극히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장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 21: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마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대다수의 앞서가는 무리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겹옷과 나뭇가지를 펴고 뒤따르는 무리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를 외쳐 댁니다.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를 맞이할 때 사람들이 길에 겹옷과 나뭇가지를 펴고 종려 나무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거나 직접 그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로 예수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정치적인 왕으로 입성하시는 줄 알고 열렬하게 환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이 환호는 며칠 못가 '저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외침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리들은 이날로부터 정확히 5일이 지난 금요일 아침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 버립니다.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합니다.

(마 21: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 21: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이 소동하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소문을 들어 예수님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라는 비아냥  
입니다.  
다시 말해 무지한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21: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곳에서는 상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들을 팔았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제도는 제사장들에 의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 등 제물들을 먼 곳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되었습니다.

수요가 많아 상인들이 서로 하겠다고 몰리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권리금  
자리세 등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착복하였습니다.

이 일에 꼭지점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돈을 먹은 제사장들은 상인들이 병들거나 저는 소나 양을 제물로 팔거나  
바가지를 씌워 파는 것을 묵인해 줄 수 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온  
병들고 저는 제물들을 제재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일종의 환전상들입니다.

이들은 환전을 하면서 환전 비율을 조정하거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득을  
취했습니다.

20 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일년에 한 번,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원래 성전세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세겔이라는 화폐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는 그것을 구할 수가 없었으므로 두로의 화폐로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살다가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시고 진노하시며 그곳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같은 행동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성전 청소를 하신 후 예수님은 이사야 56 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 21: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지 약 40 년만인 AD 70 년 로마 디도(Titus)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파괴할 때 로마 군인들이 성전예다 불을 질러 성전을 장식하고 있던 금들이 녹아내리자 사람들이 녹아내린 금을 찾기 위해 성전 벽 모든 돌들을 다 빼내 성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당신 앞에 나오자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 복음에만 나옵니다.

(마 21: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격노하셨지만 당신을 믿고 당신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합니다.

(마 21: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미 맹인들과 무리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칭호를 받으신 예수님이 아이들에게까지도 찬미를 받으심으로써 명실공히 전 유대인으로부터 왕이요 메시아시라는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노하게 했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쓴 시편 8 편을 인용하여 어린 아이들이 자신을 찬미한 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케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 21: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마 21: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이것을 정부의 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탄압이라고 하면서 저항하고 주일 예배를 강행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 교회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있노라면 막장 드라마 보다 더 막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소수의 교회에게는 모욕적인 말이 되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형 교회와 유명 스타 목사들의 탐욕으로 인해 야기된 비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녀의 교회 세습 문제, 가족들의 재정 비리,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과의 이권 결탁 등등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수자 (LGBT) 문제를 다루는 교회들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교회가 포퓰리즘에 빠져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또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하여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고 사회주의를 옹호합니다.

교인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사교장이나 클럽이 아닙니다.

태권도 띠 따는 것 같이 등급을 만들어 계급놀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지니스를 하는 곳도 아닙니다.

목회자로나 종교 지도자들이 돈벌이를 하는 곳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 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긍휼을 구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로 인해 격노하시는 중에도 당신을 믿고 당신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는 맹인과 저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려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심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Pass over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